

부분적, 소극적인 재해예방과
뒤늦은 재해복구대책은 그만!

4대강 살리기 논쟁, 이제는 끝내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4대강 곳곳에서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생태·생명·환경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제라도 지면으로나마 4대강 살리기가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 밝힌 바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넉넉한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면서 수질과 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나 이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해마다 홍수로 인한 물난리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해마다 재해복구를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제방을 높이고 보강하지만 지역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매년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그 빈도와 강도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집중호우의 빈도가 과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과거 50년, 100년에 한번 올 정도의 큰 비가 일년에도 몇 차례씩 내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눈발이 짝짝 갈라지고 먹는 물조차 구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강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낙동강의 경우 겨울철에는 흐르는 물의 대부분이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이다. 과거와 같은 부분적, 소극적인 재해예방과 사후약방문식 재해복구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로부터 겪어 왔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

13억톤의 수량 추가 확보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바닥에 쌓여있는 토사를 준설해서 물그릇을 크게 하고 강 주변에 우수지를 만들어서 큰 홍수가 나더라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고, 강별로 경사도를 고려하여 보(堰)를 설치해서 가뭄을 대비해서는 물을



문 정 호 |
환경부 차관

'81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92 행정조정실 제2행정 조정관실
'96. 7~2008. 2 :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수질보전국장, 낙동강 유역환경청장, 자연보전국장, 환경정책실장
'08. 3~2010. 3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tel. 02-2110-6602 | jungho1113@me.go.kr

가두고 비가 올 때는 물을 빼서 홍수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중 4대강에 물이 찰랑찰랑 흐르게 되어 수질도 좋아지고 강가와 고수부지에는 생태습지와 공원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는 파급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보를 설치하면 물이 썩는다고 하지만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가뭇다 뺐다하는 가동보(可動漕)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얘기이고, 실제 댐이 6개나 설치되어 있는 북한강의 경우에도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질을 좌우하는 것은 오염물질의 양과 수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3조 9천억원을 투자하여 오염물질을 줄이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준설과 보 설치 등으로 13억 톤의 수량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분야 박사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예측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홍수가 나는 것은 지류인데 본류를 준설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2년 낙동강의 김해지역이 침수한 사례나 2008년 한강의 여주지역이 범람한 사례 등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본류의 물그릇을 키우면 상류인 지류·지천에 큰 비가 오더라도 빠른 시간에 물을 본류로 빼낼 수 있어서 지류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지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하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혹자는 물이 부족하면 댐을 건설하거나 빗물 저장시설을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대규모 댐을 지을 만한 적지(適地)가 없고 설혹 짓는다 해도 그로 인해 물에 잠기는 지역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해 이미 환경단체 등에서도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빗물저장시설 또한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고 환경부에서도 이미 관련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완적인 방법일 뿐 주(主)된 방법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생태습지조정 등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

최근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과 강바닥에 쌓여있는 토사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수돗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공사 중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흙탕물 발생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홍수시에도 우리의 수돗물 생산은 차질을 빚은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우(杞憂)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또한 강바닥 토사의 경우 일부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항상 접하고 사는 일상의 토양, 논과 밭 등의 흙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한 중금속이 물에 녹아 수돗물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실제 환경부가 매월 측정하는 하천의 수질검사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할 때에도 수시로 중금속 항목을 검사하지만 한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

즉, 우리의 수돗물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4대강 공사로 인해 하천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물길을 넓히다 보면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생태계의 변화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80년대 중반 실시한 한강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직후에는 공사전 보다 어류의 종류가 줄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류의 종류가 2배 이상 늘었고 숫자도 훨씬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단순한 수로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물고기와 곤충, 새들이 날아드는 훌륭한 하천으로 거듭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는 보전 가치가 큰 하천습지는 그대로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습지는 대체 습지를 조성하는 한편 새로이 많은 습지와 유수지를 조성하여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대책들을 같이 추진한다. 또한 멸종위기에 있는 어류들을 인공적으로 증식해서 공사가 끝난 후에 4대강에 방류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하천을 직사각형으로 준설하지도 않고 직선화하지도 않는다. 하천의 측면을 아주 완만하게 준설해서 강가에는 생태습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물길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원형을 최대한 유지한다.

성공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

끝으로 일부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4대강 중 하나를 먼저 해보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염려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매년 반복되는 재해복구사업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하천에서의 공사는 시간을 끌면 끝수록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공사 중에 큰 비가 오면 그간에 해놓았던 구조물 등이 강물에 휩쓸려가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4대강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나중에 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는 이미 한강정비사업이나 태화강 정비사업과 같은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차를 두고 추진하는 것도 지나친 우려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물막이를 막고 가배수로를 만들고 보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4대강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화살이 활시위를 벗어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화살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화살이 당초 목표한 과녁을 정확히 맞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넉넉한 물 확보와 홍수예방, 수질 개선과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그리고 지역발전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한데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